

2018. 3. 28. 김백영(광운대)

1. 들어가며

* 20세기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거리의 주인공으로 한 시대를 품어준 조선총독부 건물. 한국의 식민화와 해방, 건국과 전쟁, 쿠데타와 군사독재, 그리고 고도성장을 거쳐 민주화의 도도한 물결에 밀려 해체되기까지, 그 모든 역사적 격변의 핵심 현상이자 동시에 관계망의 상징으로서, 한국인들이 경험한 ‘극한의 20세기’를 그보다 더 생생하게 증언해줄 다른 건축적 존재가 있을까. 한국인이려면 누구라도 첫눈에 강렬한 인상과 동시에 복합미묘한 감상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 생똥맞은 권위주의적 건물의 탄생에서 소멸에 이르는 극적 운명에 대하여, 이 책만큼 우아하면서도 화려하고, 집요하면서도 광대무변한 해설자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 독일사에서 출발해서 일본/한국/동아시아사를 아우르고, 문화사/계보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학제적 경계를 넘나들며 근대도시사를 트랜스내셔널하게 재구성해낸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하고도 흥미진진한 노작인 이 책은, **베를린, 도쿄, 서울(경성)을 다루는 3부로 구성**. ‘프로이센 고전주의’를 다루는 <1부>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상상을 통해 하나의 민족이 된 프로이센의 사례를 건축가 싱켈의 텍토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 <2부>는 청타오-이와쿠라사질단-제국헌법-帝都 도쿄-메이지 건축에 대한 연쇄적 논의로 구성, 근대 일본 건축문화사를 통해 제국 일본의 형성사를 재조명. 식민지기 서울을 다루는 <3부>에서는 조선총독부 청사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전의 모든 논의가 모아짐.

* 시공을 초월한 다채롭고 생생한 건축문화사의 오딧세이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익하고 의미있는 독서 체험을 제공. 개인적으로는 <1부>가 가장 완성도 높은 탐독의 대상이었고, 1) 전반적으로 국가/학계간 경계를 오가는 지점에서 번득이는 저자의 재치와 통찰력이 가장 흥미롭게 읽힘. 하지만 이 책은 수많은 장점과 미덕, 기여만큼이나 다양한 한계와 쟁점을 배태하고 있다고 판단됨. 다루는 분야가 방대한 만큼, 독자가 주안점을 둔 영역/시각에 따라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 몇 가지 주요한 문제적 지점들을 골라내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첫번째 문제] 왜 베를린-도쿄-서울인가?

* 책 전체의 구성. ‘아테네를 상상한 근대 수도의 계보학’으로 (19세기전반) 베를린-(19세기말) 도쿄-(20세기초) 서울이라는 세 도시를 연관지어 다루고 있음. 이들 세 도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저자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공통분모는 ‘프로이센 고전주의’**로서, 저자는 그것이 독일/일본/조선에서 각각 **혁명적 열정, 아시아적 전통, 식민지 토착문화를 억누르는 반동적 정치권력의 건축적 형상화**로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상상’의 주체는 누구인가? 과연 독일인, 일본인, 조선인 모두 그들 도시에 들이선 육중한 상징건축을 보면서 ‘아테네’를 떠올렸을까?

* 이것은 ‘싱켈의 텍토닉’을 주인공으로 한 (독일인 독자들을 위한) 역사서라면 납득할 수 있는 구성. 하지만 이 책이 ‘일본적 근대’(일본근대건축)의 형성사를 주된 대상으로 한 (일본인 독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고개가 가우뚱해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식민지 근대’(한국근대건축)를 주된 논제로 한 것이라면 수긍하기 쉽지 않은 논의방식. 그렇다면 굳이 조선총독부 건물에 ‘상상의 아테네’가 깃들여 있음을 읽어낼 것을 강변하는 이 새롭고도 기발한(혹은 낯설고도 불편한) 문제를 던진 저자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 그 의도는 근본적으로는, 저자가 서문에서 제기하듯이, ‘근대지상주의’ 담론에 대한 발본적 비판 내지 급진적 해체에 있을 것이다. **‘근대는 상상된 담론형성체에 불과하다’**라는 추상적(메타)이론적 입론을 건축이라는 구체적/물질화된 실체를 통해 드러

1) <1부>의 논의의 탄탄함과 조밀함에 비해 <2부>와 <3부>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싱고 영성하다는 느낌.

내 보여줌으로써, 결국 ‘근대’라는 것이 ‘환(등)상’에 불과한 것임을 폭로(?)하겠다는 의도.

* (독일어나 영어나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출간된 이 책의 출발점이 그 귀결점은 경복궁에 세워진 조선총독부 청사의 존재 이유(내지 의미)에 대한 질문일 텐데, (이 근대란 지적 여정을 경유한 결과물인) 최종적 대담으로 ‘상상의 아테네’, ‘싱켈에게 바치는 오마주’라는 ‘낯설게 하기’ 내지 해체적 수사학이나 지적 충격효과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다소 불충분하게 느껴진다. 한국인 독자들에 공급증이 유행의 어느 후발제국에서 창안된 국가주의 혹은 제국주의 이념의 좌충우돌 일대기만으로 충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 핵심적인 것은 저자가 고안해낸 이 흥미진진한 지적 여정/이정표가 과연 얼마나 논리적 필연성이나 이론적 타당성을 지닌 것인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예컨대 (건축사가 아니라 도시사라면) 파리/런던-도쿄-서울로 이어지는 지적 여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서울이라면, 그 여정의 필수적 경유지로서 -제국 일본의 内地 식민지 거점도시인 샤펬로(札幌)와 나하(那覇)는 논의로 하더라도- 外地 식민지의 주요 도시인 타이페이(台北)-장춘(長春; 新京)-심양(瀋陽; 奉天)은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식민지 대만이나 만주국의 도시와 건축이 그다지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큰 약점. 아마도 제국 일본의 지리적 판도 전체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싱켈의 텍토닉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단 하나의 도시를 꼽는다면 단연 만주국 수도 신경(新京)이 아닐까. 그리고 이 텍토닉이 왜 경성에서는 신경에서와 같이 완전체로서 구현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조선총독부’(건축물/식민권력)라는 역사적 존재의 독특성이 훨씬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본 건축사가들의 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타이페이-경성-신경 세 식민지 수도 가운데 왜 경성이 가장 도시계획이 부실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일본 도시계획/건축사가의 주된 답변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²⁾라는 특출난 개인(과 그 영향력)의 존재 여부다. 하지만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은가. 건축사 연구자들은 ‘거인’의 족적에만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국내의정세, 식민화/통치전략, 도시개발의 세력관계 등과 같은 복잡한 정치적·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간과/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 마지막으로, ‘帝都 도쿄’의 건설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古都 교토’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카시 후지타니(<화려한 군주>)가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듯이, 도쿄/교토는 서양/동양, 문명/전통이라는 ‘일본적 근대’의 야누스적 정체성을 대조적/상보적인 경관 연출을 통해 도시적으로 형상화한 산물로서,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 일본적 근대의 형성과정의 이러한 양면성/복합성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프로이센화’로 다소 단순하게 파악한 것은, 이 책의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장치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효과의 이면에 다른 어떤 면을 덮어버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는 없는가.

3. [두번째 문제] ‘문화사/계보학’적 접근 혹은 ‘텍토닉’ 환원론이 지닌 강점과 약점

* 이 책은 궁극적으로 ‘근대’라는 지배적 담론구성체에 대한 급진적 해체를 목표로 한 연구. 제도 학계에 견고하게 자리잡은 일국사학(national history)과 전문학제 담론 양 방면에 대한 동시 타격을 목표로 한 발본적인 (메타)이론적 문제제기를 내장하고 있음. 그 기획을 분석적으로 도식화해보면, **공격의 근거지는 문화사, 전략은 푸코의 담론형성체의 계보학, 전술은 건축사(건축비평), 무기는 ‘프로이센 고전주의’와 ‘싱켈의 텍토닉’**이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 첫째, **무기론**. 저자가 버려낸 ‘프로이센 고전주의’와 ‘싱켈의 텍토닉’이라는 무기는 유럽과 아시아의 근대를 연결짓는 강력한 돌파력과 횡단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근대군데 취약점도 노출. 우선 메이저기 일본의 모든 고전주의 건축물이 프로이센 고전주의 건축은 아니다. 이 책의 분석 사례

2) ‘일본 근대도시계획의 아버지’로서, 대만총독부 초대 민정국장과 만철 총재를 거쳐 관동대지진 직후에는 도쿄 시장으로 제도부흥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한 인물이지만, 식민지 조선에는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가운데 전자로 한정되기 어려운 건축물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의 자의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또한 '텍토닉'은 매우 모호한 개념.³⁾ 단지 건축사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은유로 '통치전략'과 같은 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책에서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논증이나 주장을 전개하기는 어려운 해석적/비유적 표현에 가깝게 읽히는 부분은 아쉬움.

* 둘째, **건축사/건축비평이라는 전술에 대하여.** 건축(양식)사의 자의성이나 해석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건축의 양식/경관, 특히 파사드에 관심이 집중. 건축사 이면의 사회경제사나 기술적 요인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 이 전술은 건축(양식)비평 담론의 모호성이라는 한계에 봉착. 극단적으로 말해서, 유사한 양식적 건축물을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주관적 인상 비평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 셋째, **전략론.** 푸코의 계보학적 연구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담론구성체를 낫설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지배권력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 의도. 그런데 그 계보학의 대상을 지배권력이 자신을 현시하기 위해 만들어낸 건축물로 설정할 경우, 본말의 전도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우선 건축과 경관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특히 건축사의 언어들은 정치미학, 권력을 미학적으로 승화시켜 표현(급진적 정치혁명을 대체한 보수적 미학혁명으로서의 건축). 건축(사)가들의 권력친화적 편향성, 도시/지리학자들의 공간결정론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회/주체의 대응/반작용, 공간의 화용론에 대한 입체적/역동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조지 모스(<대중의 국민화>)의 파시즘 비판.

* 넷째, **'문화사'라는 근거지에 대하여.** 이 연구는 건축사의 학제적 한계를 문화사적으로 넘어서려는 시도를 통해 문화사의 최대치를 선보이는 대작. 하지만 문화사가 지닌 강점과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 문화사라는 것의 모호함. 학계를 넘나들 수 있는 해방지대이자 동시에 학적 엄밀성이 결여된, 모호한 잔여 영역으로 취급되어버릴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4. [세번째 문제] 일본은 과연 '아시아의 프로이센'인가?

* 다음은 과연 메이지 일본의 근대국가건설전략을 '프로이센화'로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친독적 성향의 건국공신들(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흡정헌법, 생명선 개념의 차용 등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좀 더 세밀하고 입체적인 분석을 생략한다면 과잉단순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듯. 주요한 세 가지 측면만 예를 들자면,

* 첫째, **국가 건설 노선.** 계기별/사안별/국면별로 각축했던 다양한 노선들을 '프로이센화' 일원론으로 해소하여 설명해도 좋은가?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려면 적어도 일본정치사의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이견들/쟁점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 둘째, **독일 문화주의의 일본화 과정에 대한 해석.** 오카쿠라 텐신과 교토학파의 근대초극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일본의 정체성론을 독일식 '문화(Kultur)' 개념의 도입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부분.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이 혼란을 빚게 된다는 점. 일본이 '탈아입구(脫亞入歐)'에서 '귀축영미(鬼畜英米)'로 전환, '대동아공영권'의 팽창주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건축적 형상화로서 만주국 帝冠양식, 興亞式 혹은 아시아식 건축양식으로 나아가는 변화. 그런데 '싱켈의 텍토닉'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도시인 신경(新京)에서 국적불명의 가장 비서구적인 건축양식이 발명되었다는 점, 그 도시계획(물리적 인프라)은 영미권의 첨단 기술적/공학적 설비/장치를 도입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식민지도시의 이중적 공간구조(문명/암흑, 외래/토착)를 전제로 하여 구현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셋째, **프로이센 환원론의 문제점.** 당시 건축양식으로서 (신)고전주의는 세계 각지에서 유행했는데, 이러한 만국 공통의 보편적 시대정신을 싱켈의 고유한 발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베를린

3) '형식과 기능의 완전한 조화를 중시하는 건축원리'로 정의되고 있음. 관현국가 프로이센의 국가 텍토닉을 구현하고자 한 프로이센 궁정건축가 싱켈의 건축철학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도쿄-경성의 공공건축물과 같이 권력의 위광을 과시하는 역사주의적 건축물의 계보는 워싱턴 DC, 영국령 인도, 프랑수앵 인도차이나의 관청건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역사가 일친한 신대륙/신생 제국 미국이야말로 고전주의/역사주의 건축의 천국이 아니던가!) 같은 맥락에서 '베를린-도쿄-경성'과 비교해볼 때 '베를린-모스크바-평양(히틀러-스탈린-김일성)'을 경우하는 계보학적 연구전략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다.

5. [네번째 문제] '건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서울/경성이라는 파란만장한 역사도시의 독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설명할 수 있는가?

* **권력으로 환원된 건축:** 주된 논점이 '국가권력은 건축을 통치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했는가'의 문제에 놓여 있음. 건축사로 대체된 정치(권력)사. 그 결과 사회사/도시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 경성이라는 도시사회의 복잡성/역동성, 시기별/국면별 차이, 조선인은 물론 제정성 일본인 사회의 움직임 등의 변수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듯. 그보다는 덜 중요하겠지만, 일제하 조선총독부 청사가 지닌 사회적 의미의 시기별 변화에 대해 좀 더 예민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가: 1910년대(메이지기, 무단통치기), 1920년대(다이쇼기, 문화정치기), 1930년대(탈정치화, 모더니즘 시기), 전시체제기(파시즘, 총동원체제기) **건축물의 사회문화적 위상의 가변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 건축/도시설계/도시계획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일례로 이 책에서는 오스망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⁴⁾ 하지만 오스망주의(근대성의 '창조적 파괴'의 시원적/원형적 실천)가 미친 영향을 도외시키고 근대도시 건설을 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한 근대도시공간을 만드는 전략에 있어서 과연 건축과 경관이 최우선적/특권적 요인이었던가? 식민지도시 건설에서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군사와 위생이었다는 점. 건축양식과 경관은 부차적/기술적인 것으로, 그 규모/양식의 결정과정에서는 비용문제가 중요한 변수였음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 **장소성의 문제:** 총독부 청사 건축물에만 주목함으로써 인해, 경북궁/광화문거리라는 장소/공간/입지라는 복합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 경북궁이 덕수궁/경희궁이나 창덕궁/창경궁과 다른 점. 경성의 광화문앞거리라는 입지/장소성이 부정알광장이나 선은전광장과 다른 점, 더 나아가 도쿄의 황거앞 광장이나 新京의 大同광장과 다른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논의전개과정에서 건축의 양식/경관/파사드 연구와 건축 연구와 도시계획 연구와 도시사회 연구라는 서로 외연과 내포가 다른 영역을 별다른 매개 없이 다소 거칠게 오가고 있다는 점. 식민지 시기 경성의 사회상에 대해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주장이나 해석을 하려면 이러한 각 부분들의 미세한 쟁점들을 좀 더 정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 일제의 식민지도시 기획에서 '**조선총독부/조선신궁**'은 ('도쿄/교토'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의 불가분한 양축을 구성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를 논외로 할 경우 單眼的 편견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가설적으로 근대 일본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자기공정/부정 사이에서 동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그 결과 식민주의 전략도 '同化'라는 다테마에(建前)⁵⁾와 '異化'라는 혼네(本音) 양축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 모델로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함. 그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일시적/극단적 동화주의체제로서 일제 말기 황국신민화 정책이 피식민 사회에 미친 이중적 효과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

* 그밖에 경성부의 도시공간구조와 공공건축물 형성사에 대한 해석/설명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세부적인 논란과 이견들. 예컨대 경성역, 경성부청, 경북궁, 세종문화회관 등.

4) 예컨대 일제의 식민지도시 건설 전략을 '오스망화'가 아닌 '엔데-비크만화'로 파악하자는 저자의 제안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이 주장이 충분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오스망화'와 구분되는 '엔데-비크만화'의 유형적 특성에 대해 좀 더 엄밀한 설명이 필요할 것.

5) '민족동화/문명동화'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동화전략의 공존/모순, 상호 의존/갈등 양상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6. 나오며

* 이 모든 한계와 난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개인 연구로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스케일의 지적 횡단의 실천을 통해 학계간 경계와 통념의 장벽을 돌파해낸, 근래 보기 드문 찬탄할만한 대작으로 자리매김한다. 조선총독부 건물이라는 하나의 수수께끼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든 끈기와 인내, 그것을 독창적인 트랜스내셔널한 해석들 속에서 머무려낸 발랄한 상상력과 창의적 사유, 그리하여 마침내 독일사-일본사-한국사-건축사-문화사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적 돌파구를 개척해낸 저자의 용기와 끈기, 뜻심과 의지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한 연구서. 이 이상파괴주의적인 지적 실천이 우리 학계의 '근대' 해석의 시공간적 지평을 확장시키고, 우리 사회의 공간 인식과 도시적 일상에 깃든 권위주의적 무의식을 깨뜨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